

나주시, 지난해 ‘건강검진·암 검진을 지표’ 우수 선정

질병관리청 주관, 20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발표 만 19세 이상 나주시민 901명(542가구) 대상 실시

나주시의 주민 밀착형 보건의로 정책이 결실을 맺었다. 나주시가 1일 발표한 20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주시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율 지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주민 건강수준에 대한 지역통계 생산을 위해 2008년부터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전국 258개 시·군·구 보건소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나주시민 901명(542가구)을 대상으로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만성

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등 17개 영역 145개 문항에 대해 실시했다. 나주시는 조사 결과(팔로 전국 평균)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67.6%(66.9%), 건강검진 수진율 79.6%(71.5%), 암 검진율 65.7%(51.2%),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70.0%(68.1%) 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또한, 현재흡연율 18.6%(20.3%), 월간음주율 55.6%(전국 평균 58.0%), 아침식사 실천율 50.0%(전국 평균 47.0%), 고혈압 진단 경험률 19.2%(전국 평균 20.6%) 등도 전국 평균보다 높

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2023년 조사는 결과의 적시 활용을 위해 조사기간을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진행했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추진해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보건소는 △금연클리닉 운영 △영양플러스 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국가암검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등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주시 20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는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주=송준표 기자



담양군, 경로당 방문형 ‘치매예방교실’ 운영

치매 예방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이다. 담양군은 2019년부터 치매 예방관리자를 양성해 경로당 중심의 치매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87개 경로당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또한 강사의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3월 치매예방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담양군이 군민의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경로당 방문형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치매예방교실은 치매 예방 관리자가 경로당을 방문해 조기 검진의 중요성 교육은 물론 교재와 교구를 활용한 미술, 음악, 체조, 보드게임 등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인지 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이다. 김동진 보건소장은 “조기 검진, 인지기능 프로그램 등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치매 어르신을 위한 각종 지원을 통해 치매 안심 담양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치매 관련 문의 사항은 담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1-380-2971~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영암군,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프로그램 실시

4~11월 11개 읍·면 2회씩 찾아가 어르신 건강 살펴



영암군이 4~11월 11개 읍·면 경로당과 복지회관에서 어르신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매월 각 읍·면에서 2회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혈압·혈당 측정 등 기초건강검진 ▲심뇌혈관질환 관리방법 및 영양 교육 ▲전문

강사 초빙 건강체조 강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심뇌혈관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합병증 유발과 가계 의료비 상승 등을 초래해 이를 예방하는 교육이 중요하다. 어르신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자 수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영암군은, 관련 정책의 중심을 예방과 관리에 두고,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함평군, 교통사고 취약지점에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진출입 차량 속도 감속으로 교통사고 위험요인 제거

함평군은 지역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위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라포엠 사거리’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했다고 1일 밝혔다. 보행로보다 턱을 낮춘 기존 횡단보도와는 달리 고원식 횡단보도는 횡단

보도 자체가 과속방지턱 역할을 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와 보행로간 단차가 없어 보행약자의 이동편의를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군은 취약지점 선정과 설계에 이르기까

지 함평경찰서 교통계와 긴밀히 협의, 작년 하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해 이번 3월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군은 이번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로 ‘라포엠 사거리’ 내 교통사고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평=김광춘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숨결이 살아 있는

장성 필암서원

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
산도 절로 물도 절로하니
산수간나도 절로
이마도 절로 삼긴 인생이라
절로절로 늙사오리

- 김인후 선생의 '자연가(自然歌)' -

